

경제

장마에 당도 떨어지고
태풍에 낙과피해 심각

올 추석 과일 먹기 힘들다

선물세트 가격 10~35% 올라 10만원 넘을 듯

8년만의 이른 추석(9월 12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통업체가 청과 선물세트 가격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긴 장마와 거듭된 호우, 최근 태풍 '파이파' 피해로 인해 과일값이 상승하면서 선물세트의 가격을 정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9일 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올 추석 청과 선물세트는 25일째 매장에 진열할 계획이다. 그러나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사과와 배는 산지의 낙과피해 등으로 시세변동이 심해 아직 가격 전망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미리 추석 선물세트 카탈로그를 제작한 서울의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등은 과일 선물세트에 가격 기재 대신 '시세 기준'으로만 표기했다. 아직 광주지역 백화점들은 추석 카탈로그를 발행하지 않았지만 과일 시세 가능성이 어려워 난감한 처지다. 광주 신세계 관계자는 "사천 계

약된 물량이 있어 수급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호우 피해로 작황이 좋지 않고 당도도 떨어져 가격에 맞는 세트구성이 힘들다"며 "지난해 추석에 비해 과일선물세트는 가격이 20~3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도 "시세 변동이 심해 아직 세트구성과 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논의만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보다는 10~15% 이상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통 7~8만원 선에서 가격이 결정됐던 과일 선물세트는 지난해와 같은 품질 기준으로 10만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지난해 추석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과일세트는 사과와 배로 구성된 '혼합세트 4호(사과 6입·신고배 6입)'로 7만원에 판매 됐으나 비슷한 품질을 가정하면 올해는 10만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 8만원에 판매됐던 '사과세트 2호'(12입)와 7만원의 '신고세트 2호'(8~9입)도 같은 품질 기준으로 1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10만원을 넘으면 부담스러운 과일선물세트의 성격상, 올해도 7~8만원대의 선물세트가 인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급등한 과일 가격 때문에 같은 가격임에도 지난해보다 세트의 양과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농협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 개장식. 농협중앙회 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9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박주선·김영진 의원, 강계두 광주시 경제부시장, 박홍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 각계 인사와 고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유통센터 개장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 농협중앙회가 885억원을 들여 건립했으며, 지난날 14일부터 시범 영업을 들어가 신선농산물·생활용품 등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어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경영 악화 중소기업
세금 징수에 유예 확대

앞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파업, 자금경색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 납부연기 및 징수에 유예 혜택이 확대된다. 또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경우 사정에 따라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징수사수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날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인 더블딥 공포가 확산되는 시점에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다소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환뉴스

추석 식품 위생 점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9일 두암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안전한 추석성수식품 공급을 위해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유통기한 확인과 식품 규격 및 기호 적정 확인을 위해 수거를 하고 있다. /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추석 귀향 기아차 타고 가세요”

쏘울·K5 등 시승차 330대 제공. 기아자동차는 9일 추석 연휴를 맞아 쏘울 에코플러스, K5 하이브리드 등 총 330대의 귀향 시승차량을 마련해 고객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승차량은 등급 최고 수준의 연비를 자랑하는 쏘울 에코플러스 150대와 포르테 에코플러스 150대, 그랜드카니발 20대, K5 하이브리드 10대 등 총 330대다.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가 있는 고객이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기아 홈페이지(http://www.kia.co.kr)에서 귀향 시승차량을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다음달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아파트 하자 시공사에 손해청구 가능

법무부, 법 개정.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 시공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합건물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가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건물 세입자의 공용부분 의견결정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상 담보책임 규정의 적용을 받아 온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상가 등과 함께 집합건물법에 따른 담보책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아파트 소유자는 기존에는 내력구조부에 중대하자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내력구조부와 구성부분에 경미한 하자가 있을 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건물의 부분별로 세분화돼

광주·목포 220가구 매입

개·보수해 저소득층 임대. LH, 23~26일 신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9일 저소득층 임대해 위해 광주와 목포지역 다가구주택 220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은 광주와 목포지역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 220가구이며,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공인감정을 거쳐 매입한다. LH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 | |
|-------------|------------------|
| 코스피지수 | 1801.35 (-68.10) |
| 코스닥지수 | 432.88 (-29.81) |
| 금리 (국고채 3년) | 3.58% (-0.02) |
| 원·달러 환율 | 1088.10원 (+5.60) |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진주인력대기소, 정원일식, 기담철학원, 엔젤인마트, 천변주유소, 옛날세상, 엄마분식, 빛고을익스프레스, 민음고기나라, 금산건설개발, 호남특수무늬목, (주)금산건설개발, 119미꾸&오리, 하프&치킨, 무등산업, 사계절당구장, 포레스토커피숍, 건강리듬다이어트, 하안그릇백화점, 백호유통, 유성환경기술, 박기네들개량팔리랑즉생면칼국수, 성인소파, Rinnai(린나이무등상사), 진영소주방, 화석시대고기뷔페.